

抱川市民 1인당 지방세 33만5천원

5년 전 비해 13만5천원, 매년 증가... 세대당 87만2천원 시 관계자, 행정수요 증가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요인

2006년도 포천시민은 1인당 지방세를 33만5천500원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가 지난 20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2006년도 포천시 재정운영상황에 따르면 올 포천시 인구는 5만19천472세대에 15만14천684명이며 올해 세대당 부담액은 87만2천710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5년도 31만5천원, 2004년도 27만1천6천원, 2003년도 24만1천원, 2002년도 24만6천원, 2001년도 21만2천원, 2000년도 20만원 등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포천시는 2006년도 재정여건에 대해 "지방세 세입과 직접 관련

한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정책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시 승격 이후 시민들의 행정수요 증대와 대진테크노파크 및 영북지방산업단지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SOC건설 확충 등에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수지균형을 맞추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운용 방침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증진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최대한 조기집행해 일자리 창출 및 내수축진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투자심사 강화, 예산편성시 주민의견 반영,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운영 등으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2006년도 포천시 전체 세

입·세출 예산은 지난해 2천663억5천400만원 보다 165억3천500만원이 증가한 2천828억9천만원이다.
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보다 267억5천100만원이 증가한 2천369억800만원이고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46억1천200만원이 증가한 519억200만원 규모다.
또 세외수입은 전년 보다 213억

2천800만원이 증가한 264억4천200만원, 지방교부세는 11억1천500만원이 증가한 783억5천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1억9천200만원이 증가한 136억5천100만원, 국고보조금은 97억6천800만원이 증가한 390억6천100만원이다. 이에 비해 도비보조금은 17억6천800만원이 감소한 274억9천500만원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올 가을 신복면 경로잔치 해요" 신복면새마을회는 지난 24일 외북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남·녀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40여명과 주민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우이웃돕기와 경로잔치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개최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돈 적게 쓰는 깨끗한 선거 구현

5·31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算定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오는 5월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 결과 포천시장 선거는 1억3천5백만원, 경기도의회의원 선거 4천8백만원(제1선거구, 제2선거구), 포천시의회의원 선거 4천만원(가선거구), 3천9백만원(나선거구), 4천3백만원(다선거구), 비례대표 포천시의회의원 선거 4천3백만원으로 각각 밝혔다.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권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추천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한액 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설명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6월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지출명세서, 증빙서류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7월 7일까지)에 회계보고서 사본 등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수시로 공개토록 할 계획이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支援

출산장려 위해 5년납 10년보장 상품

포천시는 출산을 저하에 따른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포천시에 의하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부모 중 한사람이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부모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출생 후 부모 모두가 사망했을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건강보험료 지원방식은 1인당 월 2만원 5년납, 10년 보장형으로 계약자는 포천시청, 피보험자는 주민등록상 포천시 출생아이며 만기시 기납입 주보험료는 포천시청이 받는 형태이다.
지원신청은 부모가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신고 후 6월 이내에 포천시 청 사회복지과장에게 하면 된다.
이와관련, 포천시 관계자는 "금호생명(주)에서 제안설명회 해 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면서 "조례제정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 관계자는 "포천시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는 1년 동안 1천 3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5년 동안 총 예산은 대략 15억6천여만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社 告 불우이웃돕기 창구

본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직접 성금을 본지에 접수하거나 아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기 원하는 분들에게서는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도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을 파악하여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지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모금된 성금을 우선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월30일 현재 42개 학교 214명에게 2천14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1월1일부터 1월30일까지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을 기탁하신 고마운 분들과 직접 성금이나 물품을 전달받은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것은 서로의 고마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통장에 계좌 입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물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고마운 분들과 지금은 비록 어려워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키워 나가는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포천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 성금 및 물품 접수 내역
 - 유명천 유명산업 대표 쌀 20kg 10포대
 - 황광익 리더캐미칼 대표이사 은매트 10점
 - 이상갑 꽃샘종합식품 대표이사 3백222천50원
 - 새포전고속관광 임직원 일동 20만원
 - 김명희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 10만원
 - 김종현 포천신문 조사위원장 20만원(자동이체)
 - 김한빛 1부3천740원(사랑의 동전모으기)
 - 최설이 4천900원(사랑의 동전모으기)
 -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일동 10만원
 - 김정식 9천960원(사랑의 동전모으기)
 - 서금자(내촌보건소) 2만원(자동이체)
 - 박운중 회계세무사 10만원
 - 임경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장 3만원(자동이체)
 - 고남석 제일사우나 대표 60만원(정기기탁)

- ▶▶ 성금 및 물품 전달 내역
 - 강진영 영평초등학교 1학년 10만원
 - 최다현 영평초등학교 2학년 10만원
 - 윤성환 영평초등학교 3학년 10만원
 - 안재훈 영평초등학교 6학년 10만원
 - 최나현 영평초등학교 6학년 10만원
 - 윤정지 영평초등학교 1학년 10만원
 - 김은수 영평초등학교 1학년 10만원
 - 백지은 영평초등학교 3학년 10만원
 - 이성일 영평초등학교 4학년 10만원
 - 이한별 영평초등학교 5학년 10만원

불우이웃돕기 문의 : 031-542-1507
계좌: 농협 585-01-015241 (주)한국정보포천신문
※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창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천신문



경기도에서 들리는 - 행복의 울음소리

점점 갓난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육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엄마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은 여러분의 행복이자,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보육문제로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자 경기도가 지원해 드립니다.

- 경기도의 출산장려 시책
- 시책1 - 임신, 출산 지원
 - ①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 ②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
 - 시책2 - 둘째아 이상 1인당 월 209,000원의 보육료 지원
 - ①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보육료 지원
 - ② 출생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